

〈2022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지원사업 추가 공모〉

지원심의 총평

- 사업명 : 2022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지원사업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고귀염, 김정이, 심창우, 임수연, 진홍섭

2022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개발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는 총 2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 및 대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와 ‘유어웨이’ 총 2개의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단체의 역량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성과 및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각 사업의 세부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역시 장애예술인의 직무로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보았으며, 장애예술인들의 요구와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직무인지 고용 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담보하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의 ‘루프 아티스트(Loop Artist)’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 직무개발을 대학시스템 안으로 가져가서 재학 중인 장애예술전공자와 비장애 예술 전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루프존 활동을 통해 예술 활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도전적 과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장애예술단체가 가진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협업기관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도 돋보였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직무정의에 대한 보완과 함께 직무명 조정, 예비예술인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정의 보완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내용, 사업운영 세부사항 등 일부 조정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어웨이**가 제안한 ‘아트 디스크라이버(Art Discriber) 직무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수성과 같은 강점을 발굴 및 개발하여 문화예술지원기관, 재단 등 현장업무에 투입 가능한 직무로 개발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직무내용의 조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고유의 직무로서 지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각종 미술관, 전시관 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직무개발 프로세스를 면밀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의 보완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내용, 사업운영 세부사항 등이 일부 조정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은 두 단체를 선정하면서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꼼꼼하게 평가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사업 기간이나 선정된 직무가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고용가능성, 장

기적 확장성을 목표로 두고, 직무내용과 범위의 세분화 또는 단순화를 조금 더 고려한다면 장애예술인의 수요에 맞는 좋은 직무가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선정기관에 안내해주시고, 각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련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본 사업이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개발 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